

타클라마칸에서 나오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자리를 잡으면, 아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어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자칫 오해하면 ‘일정이 아주 지루했구나!’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 일정이 숨이 막힐 정도로 긴박하게 지나갔다. 그런데도 오늘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자주하였다. 아마 낮이 길어서인 것 같다. 아침을 먹고 출발하면 일러야 오후 2시 아니면 4, 5시가 되어야 점심을 먹었다. 저녁 역시 밤 9시 아니면 10시가 되어야 했다. 어떤 날은 11시를 넘기기도 하였다. 8일의 일정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랬다.

하루도 빠짐없이 낮의 해는 강렬하였다.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려도 공기로 전해지는 열기는 어쩔 수 없었다. 바짝 마른 열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듯하였다. 잠시라도 물을 멀리하면 입술부터 목안으로 서서히가 아니라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 만 같았다. 한 번 경험하긴 하였어도 만만치 않은 열기였다.



이때 정말 타오르는 열기고 목이 타드러가는 듯하였다(아이딩호)

게다가 모래에서 반사되는 강렬한 태양 빛은 눈을 멀게 할 듯 달려들었다. 도무지 어는 것이 진짜 색인지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밤이면 노트북을 꺼내놓고 카메라에 담고 온 색이 진짜인가 멍하게 생각해보아야 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느 색이 진짜인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이 사막의 색인지?

정작 타클라마칸을 그렇게 노렸건 만, 타클라마칸의 한 가운데서는 그 풍광조차 제대로 담을 수가 없었다. 카메라조차도 진짜의 색이 뭔가를 잊은 듯하였다. 타클라마칸을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살아오지 못하는 당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찌 보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행운인지 모르겠다. 그러할 진데, 한 번의 답사로 모든 것을 담게 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아직도 타클라마칸에서의 사진을 보면 아쉽다.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좋다는 카메라 들고 가서 겨우 그런 정도라니!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인가? 하지만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언덕! 그래서 타협해야 했다(타클라마칸에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는가! 사막에선 '타협'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 사막에선 타협이 있어야 한다. 어찌면 옛 사람들도 모두 타협을 하였더라면 살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겐 내년도 있다. 그 다음해도 있고. 경험이 쌓여야 맘에 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출발 아침부터 얼굴을 붉히고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지 않았나 행각이 든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은 우루무치 때문이었다. 시위 현장에서 수백 명이 살해당하고, 유혈이 난자하고. 외교부에선 계속 돌아오라고 하고.

하지만 타클라마칸은 조용하였다. 시위의 흔적도 없고, 유혈의 흔적도 없고 그저 조용하



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지 지금도 알 수 없다(쿠처 외곽)



변함 없는 우루무치 주변

였다. 간간히 모래가 날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나 있을까? 하지만 가는 길목마다에서의 검문은 지난 2년 전 답사와 다른 것을 느끼게 하였다. 심지어 마을 입구를 들어설 때조차도 경비가 검문을 하였다. 아직도 모르겠다. 왜 가는 마을에서마다 차를 세우고 검문을 하였는지. 정말로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자경단인지.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도시마다에서 검문을 하고 군용 트럭이 확성기를 켜놓고 시위를 하는 것은 왜 필요한지. 이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답사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 다른 것 같다. 이년 전에는 주로 한족이 사는 동네를 다녔다. 이번에는 거의 다 위구르족이 우세한 지역이다. 그 차인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밤에 공안을 만나기도 하였다. 공안이 숙소로 찾아왔다.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는 이유였다.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지금처럼 사진을 찍게 된 것이 오래된 일은 아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가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이쪽은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저쪽은 누가 있어서 안 되고. 어느새 지금처럼 자유로워졌는지 기억도 없다.

카스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우루무치는 지난번과 다르지 않게 평화롭기만 하다. 사실, 안에서는 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올 여름 중국의 서역지방을 여행하려던 사람 5만 명이 예약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것만 보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충고해주고 싶다. 그곳에선 시위는 벌어질지 몰라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도 늘 보다시피 하는 것이 시위 아니던가. 물론 수백 명 씩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궁금하면 가보라고 하고 싶다. 실크로드가 궁금하건, 타클라마칸이 궁금하건 간에.

우리 일행은 모두 체력이 강하였다. 어느 누구도 힘들어 하지 않고 총 거리도 계산하기



언제나 넘쳐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려운 거리를 8일 동안 흔들림이 없었다. 매일 밤마다 새벽 2시까지 사진을 보고 토론을 해가면서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나 반갑게 달려와 주던 위구르 주민들! 모두에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geolove.net



©geolove.net



©geolove.net



©geolove.net